

양호교사의 바램



박 옥 자

인간의 신체적 발육 단계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영유아기는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에서 하루 24시간을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자유스럽게 살아가지만 아동기부터는 광범위한 학교 사회 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속에서 1년 중 200여 일을 일정한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게 된다. 학교는 인간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교육의 장이므로 모든 학교 환경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인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인적·환경적(건강, 위생적) 물적 요소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이 학교 보건 분야이며 또한 양호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아진다.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 척도 제1위를 지적인 면에 두었지만 고도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첨단화된 사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가치 척도 1위를 건강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일선 학교에서 건강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양호 교사의 역할 수행이

더욱 절실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건강 생활 및 건강 유지를 인간 가치 척도의 제1순위에 놓고 평생 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현 교육 실정에서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건 분야를 맡고 있는 우리 양호 교사들은 끊임없는 창의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주어진 교육여건을 개선 연구 노력하여 학교 교육이 가정 및 사회 교육의 매개체가 되어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굳건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긍지 높은 양호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필자=전국양호교사회 전남지부 회장〉

